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5.(화) 11:00,
(지면) 2024. 11. 6.(수) 조간

배포 2024. 11. 5.(화) 06:00

해수부, 효과적인 항행장애물 처리를 위해 힘 모은다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항행장애물 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6일(수) 서울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선박, 원목, 어망 등 해상에 떠다니는 물체로, 발견 시 신속한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제고와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기법* △ 행정대집행 절차 △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장애물의 크기·형태,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행장애물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044-200-5857)

□ 항행장애물 관련 사진



침몰선박



쇠파이프



페로프